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한국연합복권

행운의 수요일,
행복한 저녁 7시 40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40분에 생방송됩니다!



수요일 저녁
7:40

팝콘복권의 추첨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40분으로 변경됩니다

변경일	방송요일/시간	방송사명
2011년 1월 5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40분	YTN

- 당첨번호확인 : 1588-4482, www.bokgwon.or.kr
- 판매처 : 전국 1만3천여개 복권판매점 및 전자복권 판매사이트
(www.lotto.co.kr | www.angellotto.co.kr | www.ohmylotto.com)

매년 1조원의 복권 수익기금이 임대주택사업 등
국민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 1인당 1회에 10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평~평~터지는
팝콘 1등 5억원



신년호

2011년 1월 <제 90 호>

- 발행인 : 배석규 • 편집 : 홍보팀 •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
- Tel : 02-398-8000 • 제보 : 02-398-8282 / 02-398-8585 • 휴대폰 YTN뉴스 청취 : 200-2424

YTN



목차

02 커버스토리_2011 어젠다

04 신년사
YTN 가족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_ 배석규 사장
YTN에 바란다 _ 김기덕 YTN 시청자위원장

06 포커스
YTN 4년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선정
YTN, 공정성의 기준이 되다 _ 김국진

08 사건취재기
① '북, 연평도 포격' 취재기 _ 정찬배
② '일상과 악몽이 뒤엉킨 섬' _ 나연수

12 핫이슈_글로벌뉴스센터 출범
① 글로벌 멀티 미디어그룹을 향해 달려라! _ 박득송
② YTN, 몽골까지 문화실크로드를 건설하다 _ 백상기

16 해외취재기
'광저우 아시안 게임' 취재기 _ 허재원

18 프로그램제작기
① YTN 특집 '자동차 산업, 생존의 레이스' 제작기 _ 김용래
② 신년특집 3부작 'DMZ 사계' 제작기 _ 윤순태
③ 2010 청소년범죄 보고서 - 나쁜 아이들 _ 고해미

24 콘텐츠 확대
① YTN FM _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_ 박용호
② YTN DMB '말이 좋다' 제작기 _ 배인수
③ 신년특별대담 3부작 "노벨과학상에 도전한다" 제작기

30 지국탐방
전주지국 _ 조영권

32 기획취재 _ YTN 사람
해외연수 중입니다 _ 장기영
13기 2011년을 꿈꾼다 _ 김평정

35 포토뉴스/게시판
포토뉴스 / 2010 YTN을 빛낸 사람들
연말포상 / 4분기 포상 / 전보



〈표지사진〉
2011 YTN 어젠다

커버 YTN 2011 어젠다
스토리

2011 YTN AGENDA



행복한 사회 - 스마트 코리아

201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YTN은 올해 방송을 통해 지향해 나갈 연중 어젠다를

[행복한 사회 - 스마트 코리아]로 정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YTN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 소통과 화합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지구촌을 이끄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행복한 사회 - 스마트 코리아] YTN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토끼처럼 풍성한 결실을 거두자!

YTN 가족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YTN 가족 여러분은 모두 좋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새
롭게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어느 한 해 쉬운 적이 없었지만 올 해는 정말 미디어 업
계 전체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
하게 됐습니다. 우선 KBS를 시작으로 지상파가 24시간
종일방송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지난 연말에 선정된 4
개의 종합편성채널과 1개의 보도전문채널은 가을쯤부터
방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광고시장에 이들
이 뛰어들면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민영 미디어랩 출범 등 광고판매 방식에
도 일대 변화가 예고돼 있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는 올 한해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고 비상경영에 준하는 체제와 자세로 회
사를 이끌어 갈 각오입니다. 많이 벌고 지출을 줄이는 내
핍 경영의 기본원칙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인력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채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력 규모와 생산성으로는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진
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욱이 외부 환경의 변화로 우리의 주 수입원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면 그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
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그
환경에 맞는 체제를 갖춰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채널들은 비용을 최
대한 줄이면서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 여러 가
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과 같은 인력 운용체계나 취재
시스템을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의 인력 운용 방식이나 취재시스템 등의 변화가 불가
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
라 회사의 조직과 시스템 전반을 위기 대응이 가능한 방
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도국 구성원
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근무 제도를 고쳐야 하고 어떤
취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할 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안들은 보도국장이 중심
이 돼 자체적으로 근무 제도나 취재 형태 그리고 인력 운
용 방안 등에 관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신규 채널 사업은 여름쯤 방송을 시작한다는 계획 아래
초기 투자를 최소화해서 적어도 2차년도에는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해 본사에 부담 돼온 라디오와 DMB 등 자회사는 지난
해 경영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 더 노력한다면 두
자회사는 올해 처음으로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경영의 길
로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YTN이 위성방송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
니다. 2012년 재외동포 참정권시대를 앞두고 YTN이 명
실상부한 글로벌 뉴스채널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상암동 신사옥 건립도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올 4
월 착공, 2013년 가을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상암동 사옥이 완공되면 종합미디어그룹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될 뿐 만 아니라 회사가
균건한 성장의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
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
업은 뉴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콘텐츠의 경쟁력입
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콘
텐츠에 확고한 우위를 갖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사 한 줄, 화면 한 컷에

서부터 속보와 심층취재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콘
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 펼쳐진다 해도 양질의 뉴스 콘텐츠
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투자를 주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문제는 광고입니다. 아시는 대로 신규 채널
등장 등으로 인해 올해 광고 매출을 늘리기가 매우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올해 광고 목표는 지난해 매출보다 좀 높여 잡
았습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하겠습니
다. 사장인 저부터 앞장 서서 뛰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부
터 철저히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 자
기혁신을 하지 않는 사람과 그런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
다. 눈을 밖으로 돌려 회사가 처한 현실을 냉엄하게 직시
해야 합니다. 미디어 빅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상황
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감과 열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수 경쟁채널이 등장하
는 위기의 상황이지만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대처한다
면 YTN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객을 중요시하고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원
활히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십시오. 고객의 외면
을 받고 성공하는 회사는 없고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자세를 낮추고 시청자,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는 많은 시련과 난관을 맞닥뜨리게 될 것
입니다. 쉬운 일도 아니겠지만 전사원이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올해는 신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
는 토끼처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서 풍성한 결실
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YTN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
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3 사장 배석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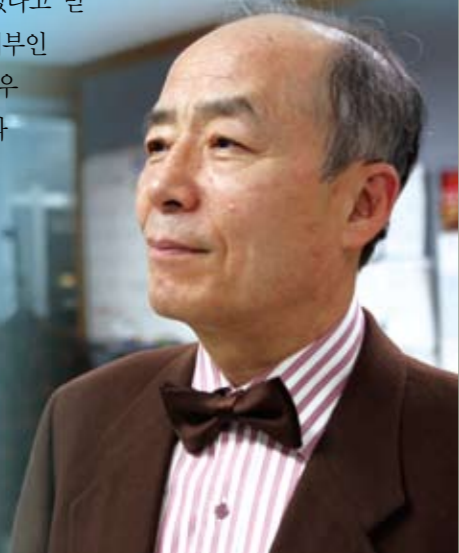
무게 있는 뉴스, 깊이 있는 뉴스를 바란다!

첫째의 무게 있는 뉴스란, 가볍지 않은 뉴스다. 요즘의 뉴스는 전반적으로 가볍다. 나는 그 이유를 취재자인 기자의 책임과 전달자인 앵커의 책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싶다. 먼저 취재과정부터 실제적 알맹이는 덜 접근하면서 흥미위주의 표 피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한다. 뉴스전문 채널의 속성상 신속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경쟁사를 의식한 시청률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취재기자가 핵심을 짚어내는 더 깊은 취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전달자의 책임인데, 앵커는 기사를 읽는데 그치는 아나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앵커는 기사를 머리로 해석하고 가슴으로 소화해서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게 있는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YTN의 적지 않은 앵커들이 취재경험과 현장경험을 거치지 않은 채 뉴스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경륜 있는 기자들을 앵커로 기용하면 뉴스는 무게를 갖게 될 것이고 따라서 뉴스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의 깊이 있는 뉴스란,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뉴스의 배경을 설명하고 해설하며 앞으로의 일을 전망까지 해주는 뉴스를 말한다. 취재하기에도 바쁘고 시간이 빠듯한 기자들에게 해설과 전망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지 모른다. 따라서 전문가들을 많이 출연시켜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한다면 시청자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시간이 촉박해 외부인사의 출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현장경험과 경륜을 가진 전문기자나 대기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기덕
YTN 시청자위원장



YTN, 공정성의 기준이 되다!

YTN이 '2010년 미디어 어워드'에서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정성은 미디어가 추구하여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에 의미있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성과는 4년 연속으로 획득한 것이기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이는 YTN 임직원 여러분들이 비전과 사명감을 공유하고 노력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사)미디어미래연구소는 디지털융합시대에 바람직한 미디어 어상을 진작하고자 '미디어 어워드'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척도를 개발하여 미디어 사회상과 미디어 경영상, 그리고 유료방송콘텐츠 부문 등에 대해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사회상부문은 신뢰성, 공정성,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한국언론학회 회원들이 해당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각 부문 최고 점수를 얻은 미디어기업을 선정해 매년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별도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척도로 최고의 미디어전문가들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YTN이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YTN이 보도 미디어로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미디어부문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공급자차원에서 수요자중심차원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용자의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미디어는 더 이상 존립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권위는 이제 과거 정보의 독과점적 선점에서 오는 공급자적 우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수용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진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통한 신속한 전달이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보도에 대한 수용자들의 평가에 따라 미디어의 권위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성에 대한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YTN이 4년 연속 공정성 부문 1위에 오른 만큼 사회적 기대수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더욱더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4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선정

YTN이 국내 언론학자들이 뽑은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4년 연속 선정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한국언론학회 회원 43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YTN은 보도의 사실성과 정확성 등을 가늠하는 공정성 부문에서 1위로 꼽혔다. YTN은 또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부문에서도 KBS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저는 지금 연평도 포격도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배! 한번 해보죠 뭐~”

중계팀 카메라맨 이성재씨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중계차 연결은 늘 그렇듯 기자 원샷 10초쯤 뒤에 화면으로 났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평도는 달랐다. 기습적인 도발로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고 30년간 꾸려온 넉넉치 않은 어민들의 삶을 빼앗긴 곳이다. 포격피해 현장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기자가 가는 이유였다.

일단 중계카메라를 트라이포드에 고정시키지 않고 어깨에 둘러맨 뒤 기자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기로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자칫 A/V라인이 꼬이거나 유리조각이 널려있는 바닥에서 손상이라도 된다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중계팀 권혁근 감독이 20분간 머리를 쥐어뜯 끝에 3가지 동선을 찾아냈다. 1단계, 폐허 속 건물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닌다. 2단계, 앵커멘트 후 1분30초 리포트가 나가는 동안 카메라는 기자를 팔로우 하고 중계팀원 2명이 뒤에서 라인을 붙잡고 따라간다. 3단계, 또 다른 리포트가 나가는 동안 A/V라인을 뽑아낸 뒤 기자는 2층 옥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옥상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중계카메라에 다시 A/V라인과 인터컴을 연결한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잠시 뒤 “네, 저는 지금 연평도 포격도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라는 멘트로 시작된 15분간의 생중계 동안 모두들 손에 땀을 쥐며 뛰어다녔다. 타사는 물론 해외취재진들도 지켜보는 상황이어서 실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중계는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그때서야 누군가 안도의 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야~ 이게 되네?”

“정차장, 지금 이거 우리 단독 화면이야~”

중계연결을 하고 있는 중에 원종호 차장이 다급하게 인터컴에 대고 얘기한다. 화면에는 바다 너머로 희미하게 섬이 보이고 있었다. 흔들리는 화면이 Zoom-In 들어가자 검은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북측 해안포 기지였다. 연평도를 쑥 대밭으로 만든 북측 포 진지가 처음으로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YTN 카메라에... 이승준 기자가 아침 일찍 해병대의 감시망을 뚫고 들어가 촬영한 화면이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YTN이 처음으로 공개하는 북측 해안포 기지의 모습입니다. 개머리 진지로 보이는데요...” 방송이 나간 뒤 북측 해안포 기지쪽으로 방송은 물론 신문 카메라 기자들까지 모두 몰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중계가 나가자 해병대 본부에서는 모든 취재진의 북측 해안포 진입을 더욱 철저히 차단했다.

“동규야, 몇 번이라구?” “12번요” 다음날 아침, 이번엔 이동규 기자가 북한 방사포 파편을 찾아냈다. 전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파편에 찍혀진 숫자표기가 논란이 된 뒤였다. 우리가 찾은 파편에도 12라는 글씨가 써 있었다. “저희 취재진이 북한군의 방사포 파편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파편의 일부인데요.” YTN이 최초로 방사포의 파편을 찾아내 보도하자 이번엔 각 언론사 마다 ‘숨은 파편 찾기’ 취재 경쟁이 벌어졌다.

“저... 오늘 하룻밤만 재워 주실래요...”

민박집 주인마저 인천으로 대피했다. 우리 취재진 20여 명이 주인도 없는 민박집에서 라면과 햇반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야 한다. 하루 종일 바닷바람 맞아가며 취재하고 온 뒤라 모두들 지쳐 있다. 또 라면인데 그나마도 귀찮다. 그냥 굵고 넘길까? 씻지도 않은 채 방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자... 어서들 와서 식사하세요” 다들 지치고 힘든데, 내 밥 내가 챙겨 먹기도 귀찮은데, 누군가 물 끓이고 햇반 데우고 김치 올려놓고 상을 차린 것이다. 꾸역꾸역 일어나 조용히 밥상 옆에 자리 잡았다. 젓가락까지 건네준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간 울컥했다. “배려”라는 단어가 이런 감동을 주는구나...

밥상 치우고 한가하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다. 모니터 한다는 핑계대고... 저쪽 방에서는 박홍구 차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내일 아이템 회의 중이다. “오늘 밤 취재는 나연수가 하고, 김도원은 새벽 5시부터 중계니까 미안하지만 3시간만 자야겠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저...○○일보 기자들인데요, 저희가 잘 곳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밤만 여기서 잘 수 있을까요?” 결국 방 하나를 내주고 우리 중 일부는 마루에서 자기로 했다. 우리는 미리 연평도에 오기 전부터 총무팀 등에서 음식과 숙소 예약 등을 준비했다고 한다. “배려”는 준비해 둔 자만이 할 수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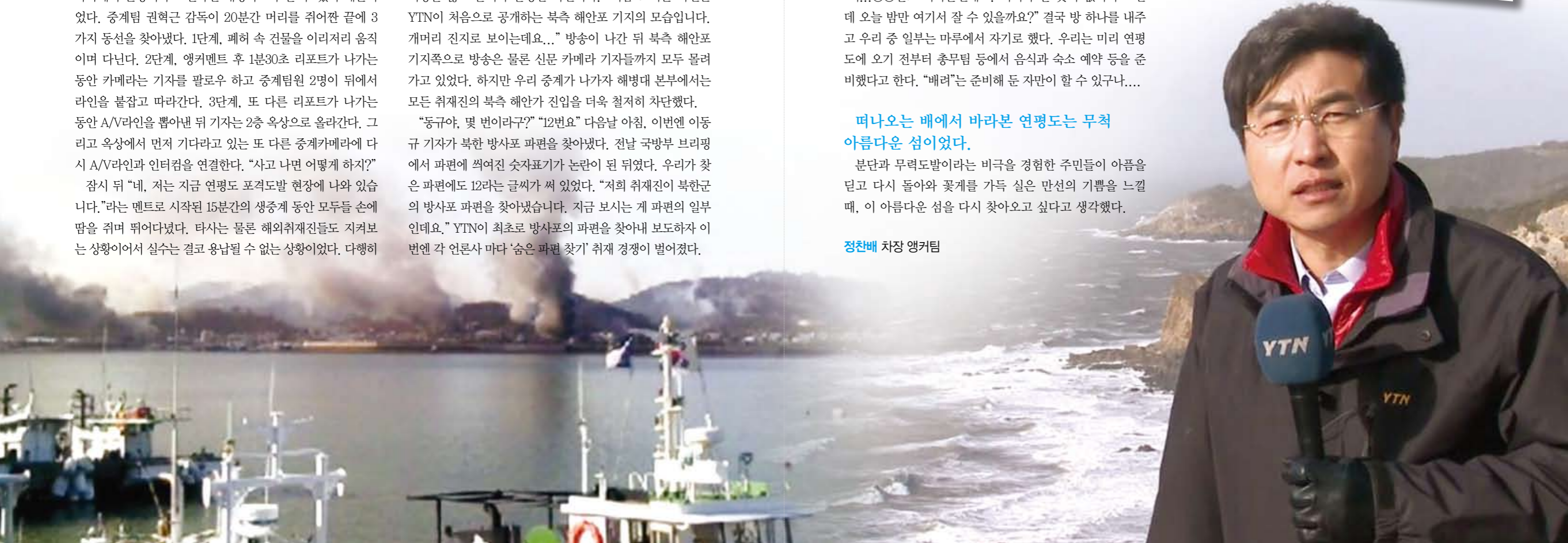
떠나오는 배에서 바라본 연평도는 무척 아름다운 섬이었다.

분단과 무력도발이라는 비극을 경험한 주민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돌아와 꽃게를 가득 실은 만선의 기쁨을 느낄 때, 이 아름다운 섬을 다시 찾아오고 싶다고 생각했다.

정찬배 차장 앵커팀



북측 동향을 촬영중인 촬영기자 이승준



'일상과 악몽이 뒤엉킨 섬'

“너희가 백령도에 갔어야 했는데”

큰 사건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사건기자들은 훌쩍 크다고 한다. '천안함 사태'가 끝난 후에야 첫 수습 철야근무를 시작한 우리 동기들에게, 선배들은 늘 “너희가 백령도에 갔어야 했는데”라고 말하곤 했다. 나 역시 경찰서 2진기자 실 동기들이 “나 그때 백령도 있었잖아”를 무용담 마냥 늘어놓으면 부러워했다. 그런데 막상 연평도로 가는 여객선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뱃멀미에 시달리고 있자니, “거기 가면 뭘 하는 거지? 내가 가도 되는 건가?” 사진 속 연평도의 시커먼 연기처럼 걱정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마른 빨래에 묻은 재

동네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950여 가구가 살았다는 군청 직원의 말에 95가구가 아니었느냐고 재차 되물었을 정도다. 경찰들은 깨진 파출소 유리창 뒤에서 난로에 손을 찌고 있었고, 주인 잃은 트럭이 기자들을 수십 명씩 태워 날랐다. 새카맣게 불타고 무너지고 깨지고 사그라진 주택 사이사이를, 기자들만 전쟁고아 마냥 헤매고 돌아다녔다. 사람이 떠난

마을에는 일상의 흔적과 악몽의 기억만이 한데 엉켜 있었다. 냄비에 채 들어가기 전에 타버린 라면, 횡집 수족관 바닥에서 말라가던 물고기 시체, 뺏뺏하게 마른 빨래들, 골목에 쓰러져 있는 어린이 자전거... 공포의 기억은 그렇게 가장 일상적인 것들에 담겨 있었다. 마을은 구겨진 그림처럼 곳곳이 그을리고 찢긴 채 버려져 있었다.

내가 취재해야 할 이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이웃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상처를 치유하기도 벅찬 시간에, 기자들이 자꾸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왜 남아 있느냐, 가족들은 어디 있느냐, 정부에 바라는 건 없느냐, 뻔한 질문을 늘어놓는 것은 건디기 힘든 고문이었을 것이다. 짜증을 참지 못해 다른 방송사 중계차 케이블을 가위로 잘라버린 주민도 있었다.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따라다니고 묻고 문을 두드리야 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고, 기자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모두 동원해도 그것은 때로 부끄럽고 염치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기자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 집에 들어 함께 뉴스를 시청하던 주민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분들의 호의와 너그러움에 감동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섬을 지키는 정신력과 침착함에 감탄했다. 사건을 통해 사건기자가 크다는 말은 비단 기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한다는 뜻이리라.

사이렌 울리던 순간

실제 상황 때문에 방공호로 들어갔던 적은 두 번이었다. 첫 번째는 YTN 현지 중계에서 포성 소리가 들렸다는 보도를 했을 때였다. 인터뷰를 하려고 전화를 건 마을 주민이 '전쟁 낫다며 대피하고 있다는 말에 정신없이 뛰어나갔다. 담요를 끼고 방공호로 내달리는 주민을 따라 뛰어가며 인터뷰한 화면은 연평도에서 처음으로 잡은 가장 역동적인 실제 상황이었다.

두 번째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대피령을 내렸을 때다. 입도하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쓰기 위해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선착장에 나가 있었다. 날씨도 맑고 바다도 예뻐다. 시간이 남아 느긋하게 등대 사진이나 찍고 있는데 갑자기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2차 도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으로 기억한다. 방공호 안에서는 마을 주민을 둘러싸고 한바탕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다. 기자들은 바닥에 엎드려 녹음기며 무선마이크를 들이댔고, 이제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인터뷰 공세에도 익숙해진 주민들은 웃으며 담소까지 나누는 여유를 보여줬다. 어느 정도 인터뷰를 하고서는 밖으로 나와 온마이크를 잡았다. 지켜보던 타사 여 기자가 뭐 하고 있느냐고, 위험하니 빨리 들어오라고 외쳤다. '왜 나는 무섭지 않지?' 정말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정말 포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공호에 안 들어가고 현장에 있을 방법이 없을까, 중계차는 멀리 있는데 화면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온마이크는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에 마음만 조금했다. 30분쯤 지났을까, 대피령을 해제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안도감과 허탈함이 동시에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5분대기조

내가 연평도에 있었던 시간은 고작 5일이다. 취재기를 쓰기 민망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눈을 감으면 섬마을 골목길 구석구석이, 밥 달라고 멍멍 짖던 강아지들이 떠오른다. 그곳에서 매일 찾아갔던 가정집의 따뜻한 방바닥도 생각난다. 아름다웠던 섬은 단 한 번의 도발로 전쟁의 바로미터가 되어버렸고, 상황은 아직 그대로다. 취재기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평도 사격훈련 속보가 들어오고 나는 만약의 사태에 바로 회사를 뛰쳐나가야 하는 5분대기조다. 나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연평도 취재를 가야 할까.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마이크를 건네야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을 대답 대신 받아야 할까. 우리 땅에는 너무나 많은 연평도가 있고 남북관계가 이대로 정지해 있는 한 내 기자생활은 끊임없는 5분대기조일 것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앞으로 비슷한 현장에 달려갈 때 연평도에서의 경험이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해주길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가 연평도에 갔다며 염려하고 격려해 주신 여러 선배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연수 사회1부





글로벌 멀티미디어그룹을 향해 달리자!

지난 12월 2일 조직개편과 함께 글로벌뉴스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다.

초대 센터장은 지난 2004년 'YTN 인터내셔널'을 출범시킨 당시 박득송 미디어국장이 다시 맡게 됐다. 그리고 해외방송 사업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김해중 팀장과 백상기, 김익현 차장 그리고 호주 리포터로 활약했던 박태환 씨 등이 모여 환상의 글로벌 기획팀이 구성됐다. 기존 해외방송팀은 강홍식 팀장과 박희천, 이규일 차장, 김여진 앵커를 비롯해 6명의 젊은 용사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과시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LA를 비롯한 미주지역과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인텔넷 8,9,10 등 3개의 방송위성을 통해 뿌려지는 'YTN 인터내셔널' 방송을 안방에서 호텔에서 식당에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되었다. '가시청, 700만 동포의 70% 이상'

해외방송팀

방송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다. YTN 본방송을 기본으로 하지만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 확보해 글로벌에 맞는 차별화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목표이다.

1) **해외 리포터 강화** 미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현재 총 33개국 47명의 리포터들이 활약하고 있다. 계속 리포터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동, 아프리카, 유럽 지역의 리포터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리포터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10여 명을 한국에 초청해 교육을 하고 있다. 외부 위탁교육과 함께 YTN 자체 교육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기진작과 방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리포터들에게 분기별로 우수상이나 공로상을 수여할 계획도 갖고 있다.

2) **자체 해외 송출 시간 확대** 현재 9시간(09:00 ~ 18:00) 송출에서 15시간(07:00 ~ 22:00)으로 확대한 다음 점차적으로 24시간 송출을 계획하고 있다.

3) **'YTN 인터내셔널' 용 신설 프로그램 제작 추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명소 탐방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다. 가능하면 외부 협찬을 받아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기획팀

미국 등 현지 플랫폼에 대한 채널 런칭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현지 광고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주법인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1) **채널 런칭 추진** 미주에 DirecTV 등 플랫폼사업자를 비롯해 TVK24 등 18개 한인 방송사에 콘텐츠 공급을 하고 있다. 이밖에 미주 주류 미디어인 ComCast와 TimeWarner 런칭을 추진해 광고수주와 미주법인 설립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인 설립을 위해 미국에서 'YTN' 상표 등록도 계획하고 있다.

2) **광고수주 검토** 해외 동포 타깃의 국내 광고주를 개발해 수주를 추진하고 정부기관 등 이미지 광고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미지의 세계인 미주 현지 광고 물량도 확보하기위해서 사전 시장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3) **프로그램이나 영상자료 제작, 판매 추진** 한국뉴스가 필요한 외신사를 조사, 계약을 협의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할 생각이다. DMZ 사계 등 다큐멘터리나 YTN 우수

특집 프로그램을 현지어로 재제작해서 판매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특히 해외 동포 참정권 관련 프로그램도 제작할 생각이다.

4) **해외방송 10주년 기념사업 추진** 2011년 4월 1일에 해외방송 10주년 기념 특집방송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동포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해 해외 사업이나 보도 전략 수립에 반영할 생각이다. 특히 10주년 기념책자 발행도 검토 중이다.

그리고 꿈은?

자 이제 소박한 꿈을 한번 꾸어 보자.

한국시간 201*년 1월 3일 월요일 아침 9시.

YTN 글로벌미디어그룹 지주회사의 회장에서 화상 회의가 열리고 있다. 특수 제작된 대형 TV 모니터에서는 세계 30여 개국 지사장들과 특파원 총국장들이 지주회사 회장단에 화상보고를 하고 있다. 미주의 LA 지사장은 '클로스미디어마케팅'의 개념을 더욱 확대 해석해 적용의 범위를 대폭 늘려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아프리카 총국장은 3-D 뉴스의 제작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론 그때는 뉴스나 정보 뿐 아니라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복합미디어그룹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세계 30여 개국 현지지사보다 훨씬 많은 100여 명의 특파원들이 활동하는 30여 개 지국이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글로벌 미디어 복합그룹으로 거듭나는 그날이 눈앞에 보인다. 꿈은 이뤄진다. 자 이제 뛰는 일만 남았다. fighting YTN, fighting YTN Global News Center !!!

박득송 글로벌뉴스센터장



Start! Global media

YTN, 몽골까지 문화실크로드를 건설하다

미디어사업국 이병균 국장과 글로벌기획팀 백상기 차장은 몽골에 YTN을 런칭하기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6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영하 20도의 대륙성 강추위 속에서 두 사람이 YTN 송출을 추진하고, 지상파방송과 보도협력을 협의하고, 그리고 대학교 두 곳에서 특강까지 실시한 출장기를 백상기 차장의 기고를 통해서 소개한다.

제1막, 빅4 SO에 모두 런칭을 확정하다!

“프랑스가 일전에 대사관을 통해서 자국 채널의 송출을 부탁한 적이 있고, 터키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 SO에 채널 편성을 요청하고, 이외도 서너 국가에서 자국의 주요 방송을 송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러나 채널 여유가 없다.” 순간 필자는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YTN 런칭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J. Enkhjargal Sansar 사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YTN을 2011년 6월까지의 런칭하겠다. 방송 송출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도 체결

하겠다!” 이번 몽골출장에서 첫 번째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런칭 협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Sansar의 가입 가구는 8만 가구에 불과하지만, 몽골 전체 유료시청자 13만 가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 SO이다. 그리고 울란바토르시의 중심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Enkhjargal 사장이 무려 외국 5~6 국가의 편성 요청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필자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이해를 할 것으로 믿는다.

아마도 Enkhjargal 사장은 YTN의 프레젠테이션에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출장자들은 ▲비록 몽골에 한국인이 3천 명 밖에 살지 않지만, ▲40개 초·중·고·대에서 연인원 4천여 명의 몽골 학생들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하다가 귀국한 몽골인이 1만여 명이고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몽골인이 약 4만인데-이들 대부분은 한국정보에 관심이 매우 많고, 이는 곧 YTN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YTN은 몽골을 매우 사랑한다고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먼저 YTN이 지난 2000년 뉴밀레니엄 특집으로 몽골의 역사를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 7부작 “새천년을 꿈꾸는 땅”을 1년 기획, 3개월 촬영의 과정을 거쳐 방송한 것을 설명하면서 일부 비디오클립을 보여줬다. 물론 사전에 통역과 준비한 대로 적절한 몽골어 설명을 곁들이면서 말이다. 그리고 현재도 YTN이 몽골관련 뉴스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울란바토르 시내 ‘서울의 거리’ 재정비 사업 ▲몽골 철도건설 사업에 한국이 참여를 희망한다는 소식 ▲‘대몽골 시간여행’ 출판 뉴스 등의 비디오클립을 보여줬다.

YTN의 몽골사랑 마지막 근거자료로 “새천년을 꿈꾸는 땅” 마지막 부분을 보여줬다. 당시 배석규 제작팀장의 클로징 멘트는 다음과 같다. “몽골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불씨를 이삭 줍듯이 찾아내고, 그들의 가능성에 우리의 가능성이 함께 보태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우리의 성과.” 그렇다! 아마도 Enkhjargal 사장은 6만 가구에 가까운 마케팅 대상이라는 큰 숫자에 매력을 느끼고, YTN이 정말 몽골을 사랑한다는 진솔한 설명에 마음을 연 것으로 보인다.

이후 2위 사업자인 Super Vision과 Khimore 케이블TV도 동일한 설명을 통해서 내년 초반 런칭을 확정하고, 몽골 최초의 전국 규모 IPTV사업자인 Univision과는 2011년 1월 3일 개국과 동시에 YTN을 방송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몽골 최대 규모의 SO 서너 곳과 IPTV에 YTN 송출을 모두 합의하는 쾌거를 이뤘다.

제2막, 지상파방송 2사와 보도협력을 추진하다!

각종 플랫폼과의 런칭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출장자들은 이제 몽골의 대표적인 지상파방송사를 향했다. YTN

과의 보도협력 등에 관해서 기초 협의를 하기 위해서다. 몽골 방송사는 우리의 연평도 사건 관련 화면을 활용하고, YTN은 내년 7월 11일에 나담 축제 영상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실무협의를 잘 이뤄졌고, 우리가 방문한 UBS와 SBN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YTN과의 보도협력을 희망했다. 개인적으로 양사 보도국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두 나라 국민에게 상대 국가에 대한 좋은 뉴스와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제3막, 몽골대·울란바토르대 젊은 가슴에 YTN을 심다!

이병균 국장과 필자는 몽골 최고 명문인 몽골대와 울란바토르대 한국어학과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특강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는 SO 런칭 협의 때 YTN의 유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몽골 대학생들에게 YTN과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물론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학생들에게 단순한 강의를 벗어나 “새천년을 꿈꾸는 땅”과 “대몽골 시간여행” 출판뉴스, 지난 지방선거에서 몽골출신 여성 시의원 후보 관련뉴스, 한국에서 몽골 마상 공연 뉴스 등 다양한 비디오클립도 소개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한국어 공부하는 물론 취미생활도 할 겸 YTN 통신원에도 도전하고, 몽골 지상파방송에서 몽골 내 한국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혹은 학생 기자)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다. 특강은 1시간 동안 십여 차례의 박수를 받으면서 잘 마무리 되었다. 필자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몽골의 최고 명문대 학생들에게 YTN을 명확하게 심었다고 본다. 그리고 10여 년 전 “새천년을 꿈꾸는 땅” 제작진이 제안한 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걸음을 내디뎠다고 믿는다.

백상기 차장 글로벌뉴스센터 글로벌기획팀



산샤르SO와 런칭협의



울란바토르대에서 특강중인 이병균 국장



UBS 스튜디오에서



산샤르 SO 본사



오렌지SO와 런칭협의



11월 광저우, 그곳에서 맡은 '사람냄새'

초췌한 모습의 기자들은 저마다 속보를 전하느라 분주했다. 공식 기록지를 확인, 또 확인했다. 들뜬 기분을 애써 가라앉히며 기사를 써내려갔다. 누군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누군가는 기사를 쓰다 말고 미소를 지으며 허공을 응시했다. 기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기에, 감동은 그토록 찬란했다. 11월 17일 저녁, 광저우 아오티 수영장 기자실의 모습이였다. 박태환이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그 날이었다. 박태환의 세 번째 금메달은 자유형 100m였다. 본인의 주종목도 아닌 자유형 100m에서, 박태환은 아시아의 세계적인 단거리 스타들을 모두 제쳤다.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집중력이었다. 박태환은 첫 50m턴을 5위로 했다. 앞에 4명의 스프린터들이 내달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아시아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후지 타쿠로도 있었다. 그들이 자유형 400m를 주종목으로 삼는 박태환을 경계할 리 없었다. 하지만 박태환의 스피트는 놀라웠다. 경쟁자들을 하나 둘 따라잡더니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후반 50m 랩타임은 24초 68. 8명의 결선 진출자 중 유일한 24초대 기록이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의 완벽한 부활이었다.

믹스드존에서 초조하게 경기를 지켜보던 한국 기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환호성을 질렀다. 기자로서 냉정과 객관성을 잠시 잊고, '우리 편, 우리 나라'에 일방적인 응원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스포츠기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였다. 박태환은 쉽게 말을 잊지 못했다. 이십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인생의 절정을 누리보기도 했고, 하루아침에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던 그로서는 바로 그 순간 지난 2년의 부침이 하이라이트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다시 수영의 즐거움을 찾았다"고 수줍게 미소 짓던 청년은 "자신감도 되찾았다"며 마침내 함박웃음을 지었다. 그를 바라보던 취재진도, 모두 그렇게 행복했다. 기사를 써내려가는 동안에도 양 미간에는 흠족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2년 전 베이징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박태환을 줄곧 지켜봐 온 담당 기자로서, 그의 완벽한 부활은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스포츠의

절대 진리를 다시 한 번 증명해 준 계기였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마이크를 잡았다. '박태환 아시안게임 2회 연속 3관왕' 리포트의 가슴 떨리는 클로징은 "박태환의 아시안게임 3관왕 등극은, 2년 뒤 런던 올림픽을 향한 전초전에 불과합니다"였다. 박태환은 이제 "런던올림픽이 자신의 수영 선수 생활의 마지막 대회"라고 말하고 있다.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팬의 입장에서, 그의 마지막 무대가 진정 화려한 피날레로 장식되길 바란다.

연일 포털 사이트를 장식하고 있는 '4차원 얼짱' 정다래의 금메달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박태환이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남자 자유형 100m 결승. 바로 그 뒷순서는 여자 평영 200m 결승이었지만, 이 경기를 주목하는 국내 취재진은 단연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기자들이 박태환의 멘트를 따고, 기록을 확인하고, 기사를 써내려가기에 바빴다.

기자실의 웅성거림을 깨뜨리는 한 마디가 터져 나왔다. "어~~~~어~~~~어~~ 다래도 금이야!" 믿을 수 없었다. 내 눈으로 확인한 정다래의 기록은 본인의 최고기록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기록이었다. 일본의 가네토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신기록에 5초 정도 뒤진 기록이었다. 하지만 아시아신기록 보유자 가네토는 4위, 가네토의 경쟁 상대로 꼽혔던 중국의 순예와 지리핑도 2, 3위였다.

부리나케 믹스드존으로 뛰어갔다. 쭈뼛쭈뼛 믹스드존으로 들어온 정다래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고두고 화제가 된 '대성통곡' 한 방으로 대답을 갈무리했다. "그렇게 잘 하지도 못했는데어어어~~~~~ 어어어영영영~~~~~" 평소의 정다래라웠다.

정다래의 울음과 어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다래의 예뻐장한 외모와 함께 그의 엉뚱함은 새로운 매력으로 탄생했다. '스타'가 되면서 정다래는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비난도 당하고 있다. 평소 태릉선수촌 수영장에서 지켜본 정다래를 떠올린다면 세간의 관심이 심히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정다래의 이번 금메달은 '운'이 많이 작용했다. 일본과 중국의 절대 강자 세 명이 약속이나 한 듯 극심한 부진한 레이스를 펼친 덕을 봤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정다래를 2년 뒤 런던 올림픽 메달 후보로 꼽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보다 '스포츠선수'를 더욱 아끼는 담당 기자의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다래야, 할 만큼 했다. 이제 네 시원한 성격처럼 수영을 더 신나게 즐기자!"

광저우 아시안게임, 11월을 뜨겁게 달궜던 그 현장에서

나는 소중한 경험 하나를 더했다. 깊은 수영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부활에 성공한 박태환과 큰 욕심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정다래. 20대 초반의 이 청년들은 스포츠기자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 큰 지표가 될 만한 교훈을 던져줬다.

비단 이들만이 아니었다. 인라인에서 금메달을 딴 우효숙은 시상식 직전 할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의 시상식을 가졌다. 기자들도 함께 울었다. 핸드볼의 '만형' 윤경신은 금메달을 따낸 뒤 "태극마크가 심장에 새겨진 것처럼 20년을 살아왔다"고 했다. 아직도 그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7개월짜리 태아를 뱃속에 품고 금메달 2개를 따 낸 김윤미는 결선 10발을 쏘는 내내 태아와 대화를 했단다. 그와의 인터뷰를 마친 뒤, 무엇에 이끌리라도 한 듯 집에 전화를 했다. 3주나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아빠, 남편은 '임산부 금메달리스트' 덕에 가정의 중요함을 새삼 깨달았다.

7년 전 타 언론사 수습 시절, 나를 뽑아준 편집국장은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글을 쓰라"고 당부했었다. 완벽하게 부활한 박태환의 환한 미소도, 예상치 못한 우승을 차지한 정다래의 대성통곡도, 할머니에게 금메달을 바치겠다는 우효숙의 뒤늦은 눈물도, 태극마크가 숙명이라는 윤경신의 든든함도, 태아와 함께 금메달을 만들어 냈다는 김윤미의 수줍은 고백도 모두 짙고 짙은 '사람냄새'였다.

3주 내내 나를 울고 웃긴 그들의 '사람냄새'는 스포츠기자로 살아가는 나에게 보람과 행복을 안겨 주었다. 이제 그들의 '사람냄새'를 진정성 담긴 기사로 담아 그들에게 보답할 차례다. 11월 광저우, 그곳에서 맡은 '사람냄새'는 영원히 코끝을 감돌 것 같다.

PS. 겉보기의 화려함과 달리, 광저우는 아시아인의 축제를 치러내기에 여러 모로 부족한 면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조악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단출했던 YTN 취재단 역시 좌충우돌 많은 고비와 위기를 겪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 내내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불편 정도는 감수해주신 이동형 차장, 권한주 차장과 김재형 선배가 함께 했기에 항상 즐겁고 보람찬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멋진 멤버들과의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아울러 232개의 메달 소식을 전하느라 헌정팀보다 더 고생하신 스포츠부 선배들께도 뒤늦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허재원 스포츠부



프로 그램 제작기 I

YTN 특집 '자동차 산업, 생존의 레이스' 제작기



벤츠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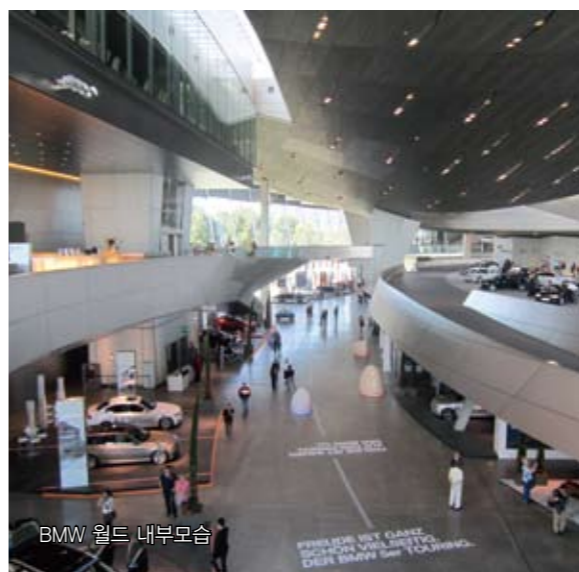
온에어 사진



BMW 월드 외부전경



오토메카니카



BMW 월드 내부모습



파리모터쇼에서 왼쪽부터 정철우 신웅진 김웅래



BMW 박물관

공항에 줄지어 서 있는 택시, 모두 벤츠였다

무더위 속에 허덕이던 8월 말, 정철우 선배와 신웅진 선배를 만났다. 5개국을 돌아다니며 석 달을 함께할 '자동차 특집' 멤버들이다.

1·2기라니... 걱정이 앞섰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났다. 사정없이 갈구던(?) 수습들과 고작 3년 차이였는데, 선배들과는 10년 이상 차이가 났다.

“정 선배 별명이 뭘 줄 아냐? 까칠이야 까칠이... 잘 해라~” 열 번도 넘게 들은 말이다. 웃음 밖에 안 나왔다. ‘허허’ 걱정한다고 동기인 강진원, 시철우(11기)와 일할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첫 일정에 나섰다. 모든 게 기우였다. ^^

“저게 택시아?”

독일 땅을 밟자마자 나온 첫 마디다. 프랑크푸르트공항에 줄지어 서 있는 택시, 모두 벤츠였다. 국내 출장으로 시작해 미국과 독일·러시아·프랑스를 거쳐 중국으로

마무리된 취재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독일 일정이었다.

‘오토메카니카’ 처음 접해 본 자동차 부품 전시회였다. 일반 모터쇼에서 볼 수 있는 때깔 좋은 차도, 늘씬한 모델도 없었다. 하지만 관람객은 15만 명이 넘었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에까지 관심을 쏟는 독일의 자동차 문화를 여실히 보여줬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저마다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었다. 방문객들의 넋이 나갈 정도로 잘 꾸며놓았다. 독일에서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놀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파리모터쇼’

새벽 5시 반부터 시작된 일정에 몸은 피곤했지만 꿈에 그리던 모터쇼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피로회복제였다. 사흘에 걸친 취재 일정 동안 출판작들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작은 차와 똑똑한 차였다.

보행자를 보고 알아서 멈추고, 차 안이 와이파이 존(무선

인터넷 공간)으로 변하기도 한다. 휴대전화의 심 카드를 꽂으면 차 전체가 전화기로 바뀐다. 콘셉트 카가 아니다. 실제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여기까지 진화한 것이다.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해외 언론과 방문객들의 관심도 높았다. 특히 새롭게 출시된 ‘ix20’는 소형차를 애용하는 유럽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파리에 비해 중국의 모터쇼 수준은 너무 낮았다. 외곽 도시에서 열려서인지 규모도 작았다. 쓰레기와 담배꽂초, 고막이 터질 정도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관람객을 괴롭혔다. 하지만 도로에는 모터쇼에서만 보던 100% 전기차가 다니고 있었다. 중국 자동차 회사 BYD 차량이었다.

휴대폰 배터리를 만들다가 이제는 아예 자동차를 만드는 BYD. 워런 버핏의 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던 회사다. 실제 애플과 구글을 제치고 세계 100대 IT 기업중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회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전기차 분야에서 보여주는 눈부신 성장세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단 비행기타면 좋고 내려서부터는 고생이다.”

선배들이 늘 했던 말이다. 취재 마치고 한국에서 해야 할 원고 작성과 편집에 대한 언급이었다. 말 그대로였다.

촬영 분량만 20GB 블루레이디스크로 40장에 달했다. 정 선배는 골방에서 하루 종일 화면을 정리하고 가편집을 했다. 신 선배는 산업부 구석에서 필요한 자료화면 확보와 원고 집필에 전념했다. 선배들이지만 참~ 불쌍(?)했다.

힘들게 작업한 결과물을 보는 날, 입사 면접을 보던 때처럼 긴장됐다. 시사회 내내 손과 등에서 땀이 흘렀다.

11월 22일부터 3일 간으로 방송 일자가 확정됐다. 주변 사람들에게 광고 메일을 돌렸다. 청첩장 돌리는 기분이었다. 기분이 묘했다. 실컷 광고했고 나니 복한이 일을 저질렀다. 2편이 나가던 날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저지른 것이다.

방송은 곧 특보 체제 전환됐고, 특집 방송은 당연히 나가지 못했다. 워낙 엄중하고 바쁜 상황이라 섭섭할 틈도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편성에 잡혔다는 소식에 연평도 현지에서 방방 뛰며 ‘온에어’를 바랐던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선배들과 글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가장 값진 일이었다. 세 사람의 뒤풀이는 앞으로 매년 ‘수시로’ 계속될 것이다. 배꼽 빠지게 재밌는 얘기를 듣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김웅래 사회부

DMZ에서 터득한 사람과 자연의 공존 방법

DMZ하면 금단의 땅, 분단의 상징, 남과 북이 대치하는 긴장의 땅 등 인위적이고 긴장된 수식어로 가득 차다. 자연다큐를 촬영하는 나는 이념으로 인해 갈라진 역사적 배경을 지닌 아픔보다는 60년 동안의 인위적 단절로 인해 사람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연이 궁금했다. 아프리카의 사자, 코끼리도 촬영하고 싶었지만 합부로 들어갈 수 없는 미지의 땅이었기에 DMZ는 어느새 나에게 성지 같은 곳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내게 2010년은 행운의 해였다. 가끔 호랑이며 표범, 여우, 곰의 흔적이 발견되어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원시의 땅으로 상상했던 DMZ를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기회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나의 '개똥철학'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몇 년 전 화천에서 수달을 촬영하다 알게 된 YTN의 이문세 기자에게서 6.25 발발 60주년으로 DMZ 특집을 기획한다는 것이었다.

평소 촬영을 꿈꾸던 곳이기에 촬영팀이 조직되고 촬영 일자를 기다리며 원시의 땅 DMZ에 입성하는 날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첫 출장. 민통선 출입 시 검문하는 군인들의 검문에서부터 낮선 풍경에 긴장감이 더해

진다. 호기심은 더욱더 커지며 "진짜 표범, 여우 등을 촬영할 수 있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과 원망으로 바뀌었다. 먼지를 풍기는 비포장 길 옆에는 속살을 드러내 황량해 보이는 군 시설물들과 산등성으로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철책, 곳곳에 보이는 지뢰표지판, 시야 확보를 위한 벌목으로 인해 황량한만이 전해졌다. 아~~~ 단절의 60년의 세월 속에 원시의 숲을 상상하던 나에게 DMZ의 첫인상은 고통으로 다가왔다.

공존의 땅 DMZ

이렇게 황량한 곳에 생물들이 있을까 하는 나의 첫인상과 우려와는 달리 이곳에는 이곳만의 자연이 존재 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다. 나의 부정적인 인식을 돌려주고 이곳이 야생의 천국임을 일깨워준 하나의 사건이 있다. DMZ의 야생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위해 산양의 촬영을 계획했다. 산양이란 놈이 너무 예민하고 서식지도 암반이 있는 절벽지대에 살기에 촬영이 쉽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촬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어느 날 군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화천의 00지역에 가면 가끔 산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날 제보받은 지역으로 향했다. 제보받은 지역에 다가섰는데 군인들이 초소주변을 청소를 하는 등 많은 군인들이 보였다. 그중에는 시끄러운 모터소리와 함께 제초 작업을 하는 병사도 보였다. 그런데 제초 작업을 하는 병사 옆에 흑염소 같은

동물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경계심도 없고 너무 자연스런 모습에 무심히 지나가려는데 "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찾던 산양이 아닌가. 너무 급작스런 산양의 출현에 가슴을 졸이며 차에서 내리는데 산양이 경계를 하는 게 아닌가. 촬영 팀이 다가갈수록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산양의 첫 대면을 얼떨결에 하였고 원하는 촬영은 실패했다. 이해가 안 됐다. 경계심이 많은 짐승이 어떻게 군부대 앞에서 서식을 하고 있고 더구나 굉음을 내며 제초 작업을 하는 병사 옆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를 보고 도망을 갔을까. 그것은 바로 서로간의 철저한 무관심이었다. 자신들만의 임무에만 충실한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DMZ만의 사람과 자연의 공존 방법이 형성된 것이었다. 60년의 세월이 군인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한 공존의 질서를 모르는 촬영팀은 한동안 야생을 담는데 고전하였지만 이곳만의 질서를 터득한 우리는 방송 사상 제일 다양한 생명을 담아낼 수 있었다.

촬영팀, 자연이 되다.

이곳만의 자연에 적응해서일까. 촬영팀은 수리부엉이, 긴점박이올빼미, 천연기념물인 까막딱따구리, 점박이물범, 저어새, 연어의 산란 등 다양한 생명들을 만나고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운도 따라 주었다. 용늪에서는 개화 시기가 좀 지났음에도 용늪 설명서에도 실리지 못한 개통발 꽃을 촬영할 수 있었고, 용늪에서 서식지 확인이 안 된 날개하늘나리를 촬영하는 행운도 있었다. 남한에는 없는 북한 물고기인 버들가지를 촬영하기 위해 그 번 오지를 몇 번을 달려가고,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의 대규모 서식지도 발견하였다.

블과 10m거리에서의 생각하지도 못한 야생의 산돼지 촬영은 촬영하는 이문세 기자보다도 옆에서 보는 스태프들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긴장의 순간도 있었다. 하천에서는 수달 전문가가 되었고 산양을 촬영하면서 습득한 야생을 보는 눈은 많은 곳에서 산양을

발견하고 멸종위기종으로 서식이 확인 안 된 사향노루까지 찾아냈다. 사향의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산양과 사향이 같은 지역에 사는 것도 밝혀졌으며 사향의 배설물로 짐작되는 암반 절벽에 센서 카메라로 설치 후 사향이 촬영되고 나서 "어떻게 촬영해야 하나"라는 압박과 그래도 "촬영해야 한다"는 의욕 등 만감이 교차하는 감정은 사향의 또 다른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촬영기간 중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은 촬영을 포기하는 안타까움보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처절하게 느끼기도 하면서 이러한 긴장에 익숙한 60년의 세월을 생각하게 하기도 했다.

에필로그

다른 분야도 노력 없이는 힘들겠지만 자연다큐는 많은 변수와 상황으로 더욱 힘이 든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상대하기에 자연을 알아야하고 흐름을 이해해야 촬영할 수가 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촬영팀은 호흡이 잘 맞는 환상의 팀이었다. 숲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동물을 찾아내고 새의 지저귀음으로 등지를 찾아냈다.

그리고 언제일 줄 모르는 촬영 찬스를 잡기 위해 끼니를 거르며 기다리는 인내심도 출중했다. 도심의 생활에서 자연인으로서의 번신이 쉽지 않았을 안광연 피디의 항상 웃는 얼굴은 촬영기간 내내 피로 회복제가 되어 줬다. 도심의 청년에서 급격한 현직인으로서의 변환은 자연을 모르지만 기다리고, 이해하려는 지혜가 있기에 가능했으리라. 비록 사향 촬영은 못했지만 망원에 ENG 카메라를 등에 매고 절벽을 오르던 이문세 촬영기자의 맘에 젖은 투지에 찬 얼굴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좋아하기에 자연의 일부가 되었기에 이 모든 촬영이 가능하였으리라. 이번 기회를 들어 DMZ 전체를 가슴으로 담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YTN과 이문세 기자, 안광연 피디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윤순태 자연다큐멘터리 전문 촬영감독



나쁜 아이들, 못다 한 이야기

가장 충격적인 사건

아직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날카로운 종이날에 베인 것처럼 당황스럽고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탄식과 눈물을 멈출 수 없어진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2010년 6월 17일 마포대교 아래에서 발견된 15살 소녀의 훼손된 시신, '홍은동 10대 집단폭행살인사건'이야기다. 수소문 끝에 피해여학생이 숨지던 날 새벽, 아이가 가족들과 통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재혼한 아버지와 살던 피해 여학생은 자주 가출을 하던 상태였는데 숨진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날 새벽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친구들과 같이 있다'며 '그동안 가출하고 말을 안들은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도와주지 않겠다'며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이는 자주 돌봐주던 고모에게도 전화를 해 '친구들한테 많이 맞아서 아프다'고 '움직일 수 없다'고 했지만 고모 역시 믿지 않았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아직 전화를 할 수 있을 그 때! 절박했던 그 순간 아이는 왜 차라리 119나 112에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아버지

에게 전화를 했을까? 기대했던 대답을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을 때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때 아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얼굴도 모르는 아이의 절망스러운 이 장면들은 오랫동안 나를 뒤흔들었다.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구속된 열다섯 열여섯의 아이들만의 탓일까?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만일 그 아이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기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계속 비슷하고도 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가 환청처럼 사방에서 내 귀를 후벼팠다.

자신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그 아이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 하나 없이 모두가 한 패가 되어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폭력을 휘두르는 곳,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매일 매일 안 가면 안 되는 곳, 그런 곳이 곧 학교인 아이들이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는가? 학교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머리가 돌지경인 아이들이 내 가족이라면 나는 과연 그 상황을 끝낼 수 있을까? 이 글을 쓰는 오늘도 초등학교 4학년 10여 명이 같은 반 동성친구를 집단 성추행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터졌다. 괴롭히는 사람은 한 명의 장난이고, 반성하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만 피해자는 결코 아무 일도 없었던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범죄피해의 추억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잔인하다.

각급 학교에 CCTV 대량 설치 / 은퇴경찰 우범지역 순찰 / 학교 내에 학교폭력 신고함설치 / 상담교사 배치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캠페인 전개 ... 이것은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의 주요 골자다. 나는 지금까지 CCTV에 학교폭력 현상이 촬영되어 그 돈 값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없다. 내가 정보통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 아이들이 지나치게 영악하기 때문일까? 그도 아니면 말하기 거북한 그 무엇이 있는 걸까? 정신병원을 드나들게 할 정도로 오랫동안 여러 명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괴롭힘이 왜 엄청난 예산을 들인 CCTV에는 잡히지 않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그거 제대로 지원되는 거 본적이 없습니다.”

세계의 사법이 피해자중심으로 바뀌고 있지만 우리의 범죄 피해자지원법은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고 배후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

12살의 초등학생 소녀C는 어느 날 학교 교실에서 가장 좋아하던 친구를 연필깎는 칼로 목을 그어 완전히 절단해 버렸다. 그리고 피범벅이 된 채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순순히 일러바쳤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창피를 준 것이 화근이었다. 그런데 아이를 조사한 한 저명한 범죄심리학자는 '소녀C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스포츠에 매진할 수 있었다면 살인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맞벌이 부모로 인해 조부모와 함께 지내던 소녀C는 배구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학업을 이유로 좋아하던 배구팀을 탈퇴할 것을 종용한데다 마침 그 즈음 부모를 대신해 키워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극도의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또래친구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사소한 일로 친구에게 거절을 당하자 더 이상 소녀C는 버틸 힘이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애착과 불안심리를 유일하게 해소해 주던 배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극도의 정신불안 상태가 되었다는 진단이 흥미로웠다.

이것은 10대가 저지른 3건의 살인사건을 정신분석학과 범죄심리학의 입장에서 분석한 '아이를 죽인 아이들'이라는 책에 실린 사건 중의 하나다. 책을 통해 깜짝 놀랄만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의 '어리광육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돌변'한다거나, 10대 청소년 범죄자들은 아무리

홍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갱생'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라는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재사회화를 위한 기회가 합법적으로 주어진다.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이었다. 사건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일어났던 것이었지만 상황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였다. 나는 정말 궁급했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배웠지만 그것이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다행이 깊어지면 '법대로 해!'를 호기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나쁜 아이들'의 기획은 바로 거기부터 시작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맨 처음 마음에 품었던 가장 큰 의문은 "왜 가해자는 보호받으면서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까?"였다. 그래서 기획의 큰 줄기로 잡은 것이 ◀ 청소년범죄,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와 ▶ 청소년범죄에는 은밀한 배후가 있다! 였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가 과연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소녀C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어리광을 받아주지도 않고, 상처받은 마음을 알아채지도 못한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청소년범죄는 그것을 부추기는 은밀한 배후가 분명 있다. '숨겨진 진실과 은밀한 배후'를 쫓았던 지난 시간은 6편의 다큐멘터리로 막을 내렸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은 화두와 과제를 안겨준 시간들이었다. 전과9범 이상의 10대 범죄자가 1천명에 육박하고 가출한 학교 밖 아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곧 성인이 될 것이다. 청소년범죄를 막는 제 1의 원칙은 조기개입과 전문처우다. 아무쪼록 YTN이 청소년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래본다.

고혜미 '나쁜 아이들'작가



따뜻한 뉴스, 감동적인 뉴스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YTN FM이 지난 11월 29일 가을 개편을 단행하면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를 전격 발탁했다. 매일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방송국에 도착해 오전 7시 시보와 함께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의 문을 여는 강지원 변호사를 만나봤다.

YTN 라디오 간판프로그램인 <출발! 새아침>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어느 날 라디오 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철원 이사한테 연락이 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해 줄 수 있냐는 제안을 해왔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은 예전에도 진행한 경험이 있지만, YTN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금 망설여졌다. 고민 끝에 보도전문 채널 YTN은 타 방송사와 뭔가 달라도 다른 게 있을 거 같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일게 됐다. 타 방송사에서 마지막 아침 시사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코미디 프로그램은 나가도 새벽 방송을 다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다짐을 했는데, 다시 새벽 방송을 진행하게 됐다. 왜냐면 제안을 받고 고민하던 중에 YTN은 중요한 매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YTN 방송은 뉴스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을 선도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출발! 새아침>과 차이가 있나?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은 KBS 1 라디오에서도 몇 년 간 진행한 적이 있고, 그 뒤 원음 방송에서도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한 적이 있다. EBS에서는 인터뷰 전문 프로그램을 담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저렇게 라디오와 인연이 좀 있다. 뿐만 아니라 TV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다. 누구는 나보고 법조인인지 방송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고 한다. 돌아보면 방송에 쓸데없이 얼굴을 많이 내밀던

적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청소년 지킴이 활동이나 매니페스토 활동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언론의 힘이 크다는 걸 항상 느껴 왔다. 언론 매체 가운데 요즘은 역시 방송의 힘이 큰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방송 매체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출발! 새아침>은 내 뜻을 펴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타 방송사에서 진행했던 아침 시사 프로그램은 전쟁 같은 프로그램들이었다. 인터뷰 대상자를 치열하게 괴롭히고, 방송 시간 내내 출연자들과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는 시사 프로그램도 따뜻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담당PD(박용호)와 첫 미팅이 있을 때 그런 나의 뜻을 전달했다. 그 후 우리 프로그램 말미에 <감동이 있는 뉴스>라는 코너가 새로 신설됐다. 그 밖에도 프로그램 전반의 성격과 내용을 싸움 닭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청취자들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조금씩 수정해 나갔다. 공급자 위주의 방송이 아닌 수용자 위주의 방송을 지향하다보니 청취자들을 위한 배려가 프로그램 곳곳에 묻어 있다.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력에 문제가 없나?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됐지만, 방송을 시작한 처음 한주는 내 정신으로 방송을 한 거 같지 않다. 비몽사몽 어떻게 방송을 끝낸 줄도 모르게 방송을 했던 거 같다. 물론 오랜만에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앞에 설 생각을 하니, 긴장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생체 리듬이 새벽에 활동하도록 맞춰져 있지 않다가 새벽에 활동을 하려고 하니 빨리 적응이 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첫 방송을 하는 날,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읽어

주는데, 기사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이 라고 잘못 읽는 실수를 범하기까지 했을까. 첫날 첫 호흡을 맞추느라 긴장을 하고 있던 박용호 PD가 스튜디오 밖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잠시 패닉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하고 깨달았다. 곧이어 베테랑의 숨씨로, 이명박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오독했으니 사과멘트를 하고 수정해 달라는 박용호PD의 토크백이 인터콧을 통해 들어왔다. 좌충우돌 이렇게 시작해 벌써 한 달을 넘게 방송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새벽 방송에 대한 부담도 줄고 생체 리듬도 새벽 방송에 맞춰진 것 같다.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저녁 약속이 많지만 새벽 방송을 위해 가능하면 꼭 필요한 모임 외에는 참석을 자제하는 편이다. 담당PD인 박용호PD의 특명으로 아침 모임부터 저녁 모임까지 각종 행사장에서도 내가 YTN 라디오에서 아침 시사프로그램을 한다는 사실을 항상 고지하고 다닌다. 박PD 말로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뭐라나...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싶은지?

YTN의 특성이 속보이기 때문에 속보성을 살리는 방송을 하고 싶다. 특히, 이 시간대 타 방송사들이 전해주는 시사프로그램은 자사 기자들의 출연이 많지 않다. 아무래도 제작국과 보도국의 관계가 그리 원활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YTN에 와 보니 제작국이나 보도국이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 같다. 특히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프로그램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기자들이 매일 아침 함께 참여해 방송을 해주기 때문에 타 방송사의 아침 시사프로그램과 차별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라디오 방송에서 아침 시사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다. 내가 진행하는 <출발! 새아침>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명쾌한 분석과 청취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캐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앞서도 말했듯이, 뉴스 중에도 따뜻한 뉴스, 감동적인 뉴스를 아침 출근길에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연령대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박용호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PD





말(馬)이 좋~다? 말은... 좋네...

말이 좋다? 아~ 경마 프로그램...

제일 많이 듣는 말(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녹화를 위해 '말이 좋다' 로고가 박혀있는 소품을 들고 스튜디오를 오갈 때, 그리고 촬영을 나가 특히 경마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YTN에 경마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장수한 프로그램은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회사 내 많은 선배들도 프로그램 이름에 '말(馬)'이 들어가니 당연히 경마를 떠올리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마 프로그램? 글썽요...

경마 정보를 제공하니 경마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마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馬)'하면 경마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쓸 때 가끔 미사여구의 연속이 될 때가 종종 있지만, 이번 말 프로그램 기획 의도만큼은 기자 선배들의 말대로 '팩트'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하면 경마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녹화 끝나고 기술팀 선배들의 한 마디가 생각납니다. "말이 좋다?... 말은 좋네!"

말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을 곧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라는 한 마디로 제 입에 재갈을 물린 선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삐를 잡고 저를 과천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관계자들과의 미팅,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머리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말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걱정뿐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선배도 그런 내 맘을 아는 지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말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뭐가 있을까?'

'아, 내가 말피지...' '정작, 이것뿐인가?' '아... 맞다. 내게 재갈을 물린 저 선배도 말피군.'

회사에 복귀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선배를 불렀습니다. "선배, '말이 좋다' 어때요?" "어, 괜찮네."

유쾌한 프로그램, '말이 좋다'.

무겁지 않게, 밝고 유쾌한 정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수현 앵커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이경재 선배를 편집실에서 만나 녹화해 둔 공중파 정보프로그램을 플레이 했습니다. "선배, 이렇게 스튜디오 분위기가 밝고 유쾌했으면 좋겠어요." "음.... 좋네" "좋지요 선배, 저희는 진행자가 두 명뿐이고 방청객도 없어서 이 정도는 힘들겠지만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좋아... 근데 나도 이지에 아나운서랑 하면 안 돼? 그럼 잘~할 수 있는데!"

아~ 아이템!

뉴스도 그렇겠지만 제작 프로그램도 아이템 걱정이 많습니다. 소재가 제한적인 '말이 좋다'도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연출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엔 국립승마학교가 있다는데 우리나라에는 교육기관이 없을까?" "선배, YTN스페셜 세계의 축제에서 말 관련 축제만 모아봤어요." "다음 주에 마사회에서 재활승마교실이 열리네요." "승마를 즐기는 연예인들을 좀 찾아볼까?" "개그우먼 배연정이 승마로 우울증을 치료했다는 기사 봤어요." "승마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서울에는 한 군데 뿐이네요." "거의 매주 활동하는 '말'동호회 리스트예요."

말과 사람이 함께하는, 좋은 아이템 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맛있는 식사로 보답하겠습니다. 내선 8937입니다. ^^;

혼자 할 수 없는 일...

"야, 일주일 만에 타이틀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근무 외의 시간을 활용해 일주일 만에 만든 타이틀에선 선배가 고민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데 소주까지 한 잔 사주며 더 잘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네요.

"첫 스튜디오 녹화 때는 좀 더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하지!"

늦어서 빨리 녹화를 진행하려는 데 갑자기 기다리랍니다. 로고가 새겨진 소품에 따로 조명을 치면 풀샷이 더 좋을 것 같라며 어디선지 조명을 하나 들고 온 선배는 헬레벌떡 사다리에 오릅니다.

"린수야~(음악실 선배의 '인수' 발음) 퇴근 시간 다 됐다... 이제 와서 작업하자고 하면 어떡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네 프로그램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겠다'면서 이 음악 저 음악 실 새 없이 고르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면 몸도 마음도 바쁩니다. 그럴 때 '모든 게 네 잘못'이라는 선배들의 한 마디는 참 야속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 맘은 고마움으로, 그리고 미안함으로 서서히 디졸브 됩니다. 처음 연출스태프로 방송 일을 시작했을 때, 함께 일하던 선배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송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이 좋다'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2011년도 화이팅!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도움으로 지난 11월에 첫 방송을 시작한 '말이 좋다'는 이제 6회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 새로운 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체구에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말처럼 언제나 기획의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불어 커다랗고 순수한 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재활승마와 같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내고 알리는 데도 힘써 행복하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승마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마일체(人馬一體)'라고 합니다. 일체가 되었을 때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2011년 한 해, YTN 가족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움과 행복을 맞출 수 있는 유쾌한 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인수 YTN DMB '말이 좋다' PD



말은 곧 생활이다! 승마와 경마 선진국에서 말은 곧 생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말' 하면 경마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경마로만 치우친 국내 현실에서 말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은 모색해 본다.

유쾌한 말(馬) 정보 프로그램 '말이 좋~다!' YTN에서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말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레저스포츠로서의 경마, 생활체육으로서의 승마에 대한 균형 있는 정보를 '말이 좋~다'에서 유쾌하게 풀어보려 한다.

노벨상은 범국가적인 프로젝트

언뜻 보아도 살날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노인이 힘겹게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다. 지나가던 젊은이가 그 진지함에 마음을 뺏겨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르신, 그 사과나무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내 나이 만큼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우리는 지금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본다. 우리의 문명이 이렇게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은 과학 덕이었다. 또 미래를 여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과학의 힘이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그 ‘사과나무’란 바로 과학인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한국은 지금, 한 치의 눈앞만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2010년까지 노벨과학상을 15명이나 배출했다. 분명 우리보다 과학이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 이견을 달 수 없게 되었다. 과연 한국인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과학에서만은 안 되는 것일까?

지난해 서울대에서 석사과정까지 수료한 컬럼비아대 김필립 교수가 아쉽게도 노벨과학상을 놓친 일이 있었다. 일견에선 그가 일본인이었다면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그런데도 김필립 교수는 “과학자의 최종 목적은 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교수는 남 얘기하듯 웃으며 말했지만 이것은 김교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노벨과학상 수상은 선진국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지 오래로 겸손과 겸양으로 뒷짐질 일이 아닌,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범국가적인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 지식체널인 YTN 사이언스가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YTN사이언스는 <노벨과학상 도전>을 2011년도 연중 프로젝트로 정했다. 우리나라 과학이 세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면 YTN사이언스가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그리고 고민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은 왜 중요하며 수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논의 끝에 시작된 것이 <특별대담 노벨과학상에 도전한다>였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현재 한국 과학계에 대한 정확하고 냉철한 진단이었고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국내 과학계의 한계와 가능성을 들여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취지에 국내를 대표하는 과학자들도 흔쾌히 출연에 응했다. 연구 현장에서 한국 과학계의 문제에 대해 그 시급함을 먼저 깨닫고 있었고 이런 자리가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먼저 제작진은 우리나라 과학계가 노벨과학상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를 알기 위해 수상을 놓친 김필립 교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김필립 교수의 스승이



자 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인 김정구 교수, 그리고 김필립 교수와 함께 세계 그래핀 연구의 선두주자인 40세의 젊은 기수 홍병희 교수가 출연해 김필립 교수가 왜 노벨과학상을 받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노벨상을 노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제작진은 전문가들과의 사전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노벨과학상수상을 배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국내 기초과학 기술 분야의 취약함을 알았다.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기초과학기술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먹고살기에 바빠 산업적인 측면의 실용적인 과학기술만 발전시켜온 것이다. 그 문제점과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국내 제1호 국가과학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신희섭 박사와 한국 과학 정책의 전문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박구선 본부장을 모셨다. 과학자와 국민,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진단과 방안을 이야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한 것은 대학이다. 세계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상의 요람은 대학이다. 하지만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순위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내 대학이기도 하다. 이에 국내 이공계열의 대표적인 학교인 포스텍의 백성기 총장을 모시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대학의 경쟁력을 살펴봤다.

21세기는 지(知)의 세기이다. 20세기에 이룬 과학 업적의 긍정적인 면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데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 YTN사이언스가 한국 과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고심해 신년특별대담 3부작 “노벨과학상에 도전한다”를 제작했다. 이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물리학자 브라이언은 말했다. ‘세상에서는 요즘 과학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고 그 파괴성을 선전한다. 그러나 과학은 우리에게 너무도 아름답고 멋진 많은 것을 주었고,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과학을 포기하는 것은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과학은 사람들의 삶에 특별한 것을 더해 줄 수 있다.’

YTN사이언스는 우리 과학자의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해 대담 프로그램이외에 특집 등을 제작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YTN사이언스 <노벨과학상에 도전한다> 제작팀
 작가 : 김지연, 오민아 / 연출 : 김신영, 김기연



김정구 서울대 교수



박구선 본부장



백성기 포스텍총장



신희섭 KIST 박사



홍병희 성대교수

조일 땀 조이고, 풀 땀 확 풀어야

2011년 겨울 전주, 쌓인 눈을 털어내며 봄을 기다린다.

봄이 오기 전까지 전주지국은 엄청 바쁘다. 눈 때문이다. 그 날 눈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굵은 눈발이 억수로 쏟아져 폭설이 되는 경우라면 전주 식구들은 정말 정신없이 바빠진다.

새벽같이 나와서 생방송 물리고, 이어 리포트까지 끝내야 한다. 그렇게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면 피해나 사고는 없는지, 내일 출근길은 괜찮을지, 다음 날 아침 생방송을 또 생각해야 한다. 폭설이 내렸는데 피해도 없고 사건사고도 없으면? 얼른 차를 몰아 무주 스키장이나 정읍 내장산에 가서 설경이라도 취재해야 한다. 서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겨울을 지낸다. 봄을 기다리며...

우쭈... 아니나 다를까 2011년 1월 1일, 전주는 역시 그렇게 눈 치다꺼리로 새해를 시작했다. 노장께서 바쁘셨다. 홍수기 선배가 당직이었기 때문이다. 폭설에 AI까지 겹쳐 발생했으니 흰머리 휘날리며 정신이 없이 뛰어다니셔야 했다. 이번인 나는 미안했다. 1월 2일, 리포트 개작 때문에 사무실에 잠깐 들러 인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웃으면서 '괜찮다'고 '별일 아니다'고 하신다. '쉬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푹 쉬어라'고 하신다. 고맙다. 홍 선배는 그런 분이다.

새만금에서 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까지, 전라북도에는 어떤 일이?

전주 공장(?) 사람들은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일들로 뉴스를 생산한다. 추려보니 지난해에는 전북과 전주 관광 관련 기사가 유난히 많았다.

33.9km 새만금 방조제가 지난해 4월 네덜란드 주다치(32.5km)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극했다. 전주한옥마을은 슬로시티가 됐다. 농촌이나 산골 마을이 아닌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한옥 동네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 일은 슬로시티 개념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사건'이었다. 또 전북 관광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지리산이다. 지리산 둘레길에는 사계절 내내 등산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 한국음식관광축제가 열렸다.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라북도와 전주를 찾았다. 새만금 방조제에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천만 명 넘는 관광객이 몰렸다.

새만금을 찾은 그 많은 인파가 전주에 들렀다. 비빔밥을 배불리 먹고 막걸리에 흠뻑 취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사람들은 먹고 마셔서 불린 '살들'을 빼러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다. 일년 내내 그랬다. 우리는? 열라 취재하고 리포트를 만들었다.

전주지국 자랑거리? 한 달에 한 번, 거르지 않고 회식하는 지국 있으면 나와 봐! 우린 '혀'!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걸 정말 전주지국 자랑거리이다. 왜냐고? '콩가루' 집안이라면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국 가족들 모두가 마음이 맞아야 회식 자리, 술자리가 즐겁다. 물론 먹을거리가 항상 고민이다. 이번 달 회식에서는 뭘 먹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골치 아프다. 우리 전주지국 식구들이 얼굴을 보고 산 지 18년째이다. 홍 선배만 빼고, 마누라하고 지낸 것보다 지국 식구들과 살 맞대고(?) 산 날이 '훨' 길다.

회식하는 자리에서 전라북도 음식이란 음식은 그동안 안 먹어본 것 없이 죄다 먹어봤다. 구제역? 우린 상관 않는다. 소,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지 지금도 엄청 잘 먹는다. AI? 취재 끝나면 오리 훈제와 주물럭 먹고 옷담 국물 마신다. 고창 풍천장어로 배를 불리고, 굴 전골에 굴 삼합까지 안 먹어본 것이 없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푸짐한 안주가 '쏟아져 나오느' 전주 막걸리도 우리 회식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다. 전주는 정말 먹을거리가 '착한' 고장이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착하게' 산다.

참고로 전주지국은 매달 중순이면 회식 날짜를 조율한다. 그때쯤 미리 연락하고 온다면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거, 일 아니다. 전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고, 취할 수 있도록, 지름신의 강림과 축복을!

전주지국 사람들 근황, "욕들 보고 있소잉, 하이카나 재미지게 지내드랑께!"

우리 대장 홍 선배는 여전히 하고 싶은 취재가 많으시다. 내가 사보에 낼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홍 선배는 고창으로 취재를 가셨다. 홍 선배는 항상 자율적으로 행동하기를 강조하신다. 지시하고 강요해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흥이 나서

일을 해야 직장 업무가 잘 돌아간다는 거다.

그런 홍 선배도 후배들에 대해 불만스러운 것이 있다. 가진 것 많은 가운데 '돈'까지 많으신 홍 선배. 후배들이 저녁이든 술이든 무엇이 됐든지 함께 하자고 쫓아다녔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는 것이 불만이다. 회식이 아닌 날 전주 식구들은 저녁만 되면 죄다 관리 모드로 들어간다. 여승구 기자와 최지환 기자, 최지훈 씨는 배드민턴 광이다. 개인지도까지 받아가며 허벅지가 '꿀벅지'가 되도록 땀 쪽쪽 빼면서 운동을 한다. 실력이 가히 프로수준에 이른 이 세 사나이들은 평일은 물론 이따금 주말에도 체육관으로 나가 계임을 한다. 총각인 최 기사를 제외하고는 가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는 후문이 종종 들린다.

그러면 나는? 나는 집에 가서 애들 밥 해먹이고 설거지해야 한다. 마누라가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는 탓이다. '혈.' 어찌된 사람이 기자인 나보다 더 바쁘다. 그리고 운전하는 상규 씨는 유일하게 홍 선배와 대적할 만한 주당이였다. 적어도 2010년 11월까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병원에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처분을 받고 근신 중이다. 송년 회식 자리에서도 술 한 잔 못했다. 그로선 최악의 상황이다. 인생의 낙이 없단다. '인생의 낙'을 찾으려면 빨리 장가를 가야지 별 수 없게 됐다.

에필로그

느끼셨겠지만 전주지국 사람들은 낙천적이다. 일을 할 때는 다른 생각 없이 일에 집중하지만, 업무가 끝나면 자기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 홍 선배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

는데, 조일 땀 조이고 풀 땀 확 풀어야 한다는 게 전주 식구들 생각이다. 물론 그렇게 되지 못한 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전주 식구들도 올해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우리 공장이 경쟁해야 할 느자구 없는 적군들이 하나도 아니고 넷씩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는 지략에 능한 '조조'처럼 살기로 다짐했다. 원소가 끌고 온 병사 70만을 정예병 7만으로 물리쳤던 삼국지의 영웅, '조조' 말이다. 전주지국 가족들은 올해 좀 더 지혜롭고 기민하게 움직일 것이다. 지켜봐 주시라.

조영권 차장 전주지국



최지훈

최지환

조영권

여승구

김상규

홍수기 지국장

연수 준비는 건강 챙기기부터

출국 이틀 전 이사, 전날 연수 짐 꾸리기, 그리고 30시간에 가까운 비행, 무리한 일정 탓에 미국 미주리주 콜롬비아에 도착하자마자 뻘고 말았습니다. 목과 허리 3곳, 신통찮은 허리가 결국 말썽을 일으킨 겁니다. 거의 누워 지낸 시간만 3주, 귀국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면 무작정 동네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고 또 걷는 양도 늘어나가면서 몸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9km 떨어진 학교까지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오갈 정도가 됐으니까요. 기후는 서울과 비슷한데 올 여름엔 비가 적게 내려 통증완화에도 기여를 했죠. 가끔 지나가는 토네이도는 위력이 대단해서 연말 연시 미주리주에서만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햇빛도 정말 따가워서 허물 벗기 싫으면 한 여름에도 긴 옷은 필수죠. 물론 이곳 사람들은 거의 벗고 다닙니다.

부실한 허리가 좀 나아지니 이번에는 짐사람이 피곤했습니다. 제 뒤치다꺼리를 하다 몸살 난 것이라고 단순하게 여겼는데 일주일 넘게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 해 전 수술 받고 병원신세를 진 뒤부터 부쩍 힘들어해 왔거든요. 어렵사리 안식년까지 받아 함께 왔는데 건강문제로 최근 사직서를 낼 때까지 무심했던 저로서는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낮선 땅, 동네 친구도 없고 한 달 남짓 집안에만 박혀 지낸 애들 고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영어 교육이요? 얼마 전 교사 면담에서 4학년 첫 아이 선생님 알, 말을 못하는 줄 알았다고 농담을 하시더군요. 둘째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미국에 데려다 놓던지 날 한국에 갖다놓든지”, “커서 통역사 쓰면 돼” 라며 때 쓰고 매일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스쿨버스에서 내리곤 합니다. 대신 두 녀석 우애는 남달리 돈독해졌습니다. 치고 박고 울고 웃고, 형과 힘겨루기 해온 작은 녀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형이랍니다.

이래저래 한 달을 허비하고 나서야 시작한 본격 연수. 점점산중, 보통 사용하는 말이 CNN 앵커처럼 정확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미국 중서부 특유의 발음이랄까, 답답합니다! 더욱이 인도, 중국, 남미 출신 등 이들 모국어 발음과 억양까지 겹쳐서...

“천천히 다시 말해 줄래?” 요청하고 다시 들어도 그게 그거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또 발바닥에 생긴 티눈을 빼는 약, 이런 용어를 이곳까지 와서 쓰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 봤겠습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한 번은 영하 20도로 떨어지기 바로 전날, 집 관리 회사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일러 점검을 요청했거든요. 다음날 관리회사 담당자(임대 계약서를 쓸 때 만났던 사람)에게 이메일로 조치에 대한 감사의 뜻, “당신이 보낸 사람이 일을 아주 잘 처리하고 갔다.”을 전했습니다. 다음날 답장은 이랬습니다. “That’s me that worked that.”

연수 6개월째인 지금은 눈치도 빨라지고 영어실력도 제법은 것 같습니다. 멧모르고 “Yes” 하고 답했다 밤새 숙제하는 일은 더 이상 범하지 않을 만큼 내공이 쌓였습니다. 또 최근 연평도 일로 한국에 관심 갖는 교수와 학생이 부쩍 늘면서 질문도 많아졌는데 “네 질문이 이런 뜻이냐” 확인할 만큼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수업 들은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첫 학기 현장학습은 콜롬비아에서 2시간 거리인 캔사스 시티에 있는 신문사방문이었습니다. 이 신문사 역시 미디어 환경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일문일답도 있었는데 한마디로 묘책은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한다 뭐 이 정도라고나 할까요. 또 기자들의 업무강도는 본업에다 인터넷에다 아이폰까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추가 보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군요. 이 답변은 한국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답의 한 토막을 직역하면 “회사 그만 다니고 싶으냐” 여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도 취재시간이 준데 대한 우려는 크다고 덧붙이더군요.

새 친구도 사귀었는데 중국 기자들입니다. 함께 ‘탐사보도’ 수업을 들었는데 내용은 신입사원 대상 취재 관련 교육정도입니다. 연수기관이 미주리 대학 내 IRE (Investigative Reporter & Editor)인데요, 소장 강의라 들었습니다. 딴 강의로는 CAR (Computer Assisted Reporting)가 있는데

요, 엑셀과 엑세스,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SNA (Social Network Analysis) 등을 활용해 대용량의 수치정보를 가공하고 이를 통해 숨겨진 사실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매년 8월 초순 IRE는 기자들에게 CAR를 가르치는 미니 캠프를 열지만 누워있는 통에 참석을 못해 수업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최근엔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늘고 있는데, 제 경우 오랜 선거방송팀 경험(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죠.)에서 이미 수업 내용 이상을 활용해봤기에 영어에 관계없이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더러는 보도에서 가설검증도 하는데 학자들이 낸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경우는 봤어도 기자들이 직접 통계수치를 해석하고 상관관계까지 찾아내 보도를 하는 것, 과연 이걸 보도라고 해야 할지 의아심이 들기도 하더군요.

미국에서 제일 싼 것이 퍼블릭 골프라면서 골프를 배워라는 조언도 받았지만 그 놈의 허리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노느니 염불한다는 심정으로 새 학기 강의도 10여 과목을 후보군에 올려놨습니다. 몇 과목만 추려내 제대로 한번 도전해볼 각오입니다. 또 가족 건강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인근 월마트에서 집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짐볼, 트랩플린)도 장만했습니다. 대개는 거라지 세일에서 그저 몇 달러씩 주고 장만하는데 제법 투자한 셈이죠.

미국 중서부의 작은 외곽 도시라 밤하늘이 정말 맑습니다. 별빛 총총한 하늘을 보노라면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 왜 이곳까지 와서 이려고 있지 하는 생각도 들죠. (아빠가 할 일이 몇 배 늘었거든요, 특히 언어 한계 + 접근하기 힘든 병원 + 느장 행정처리 등.) 그래서인지 해외에 나와야만 재충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많은 경험과 공부를 하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아무튼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연수에도 물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연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엇보다 건강부터 다져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영어공부도 물론이고요.

장기영 차장대우 보도국



캔사스 시티스타 방문 (캔사스 시티에 있는 신문사)



콜롬비아에서 열린 미주리대학 미식축구 경기



함께 탐사보도 수업을 받은 중국 기자와 함께



당차게 뛰어다니는 '사슴' 지켜봐 주세요!



8월의 어느 날. "SBS 기자는 CCTV를 구했는데, 너는 왜 못 구했을까? 말해봐!"

유난히 대형 사고를 뺨뺨 터뜨리던 그때, 좀처럼 수습에 게는 전화를 걸지 않으셨던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자신 있게 말할 변명거리는 없고... 택시 안에서 눈물을 닦고 보금자리,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12월 10일, 인사가 나고, 1진 선배들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1진이자 말진! 경찰서에 YTN기자는 혼자밖에 없게 됐습니다. 수습 땀을 때보다 더 큰 부담감이, 부담감은 두 배로 늘어난 업무량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커진 책임감으로 일하려 하고 있습니다.

"YTN" 세 글자를 저희 이름 앞에 붙이기 위해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저희를 담금질하느라 고생하셨던 선배들 얼굴도 한분 한분 다 떠오릅니다. 남자들 술 마시면 군대 이야기 하는 것처럼 기자들은 수습 시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저희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해हत. 올해도 저희는 '사슴'으로 경찰서를 또 여기저기를 오지랖 넓게 뛰어다니겠습니다. 막내답게 젊은 피답게 열심히 땀 흘릴 준비 돼 있습니다. 폭설, 한파, 집중폭우, 또 한파. 이렇게 차례차례 겪다보면 또 한해가 지나가겠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갈 테니까요. 또 한 번 수많은 불과 물난리, 피의자들, 제보자들과 함께 으샤으샤 해 보겠습니다.

하하, 그래도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임하겠습니다!
이제 막 신입 티를 벗은 우리들, 부족하지만 계속 채워나갈 부분이 더 많기에 2011년, 쑥쑥 자라날 저희 모습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자가 되고 싶었을 때 처음 가졌던 생각, YTN에 합격했을 때의 다짐들 떠올리며 당차게 올 한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김평정 사회부

5월 3일 새벽 5시 58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김평정입니다!" 돌아온 것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저음의 한마디 "지금 몇 시야."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에 쭈뼛대며, "네, 5시 58분입니다." "내가 몇 시에 전화했어. 시계 똑바로 못 봐? 정각에 전화해."뚜 뚜 뚜

속옷과 양말, 세면도구를 가득 넣은 가방을 메고 남대문경찰서에 도착한 그날. 그렇게 수습기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엔 왜 이리 사이코들이 많을까요.

오늘도 형사당직실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몇 살, 누구, 어디서, 왜 들어왔는지, 또 유명한 사람인지, 특별한 점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처음에 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였던 경찰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포토 뉴스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 대회 (11.21)



전국 소년보호기관 '올해의 교사상' (11.22)



YTN 2010 대한민국 10대 골프장 시상식 (12.2)



4년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선정 (12.15)



2010 YTN 송년콘서트 (12.23)



연평도 포격사건 피해지원 성금전달 (12.27)

2010년 YTN을 빛낸 사람들



이문세, 김태운. 한국방송카메라기자상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김문경 올해의 방송기자상 / 협회권, 홍성현 언론상(한국방송기자클럽)



김진두 2010년 대한민국과학문화상 대중매체 부문(한국과학창의재단)



정명렬 방송기술대상 우수상 (방송기술인협회)

연말포상 2010년 12월 31일

- **올해의 YTN대상** 김문경 정치부 해군 초계함 침몰 사건 특종 보도
- **특별상** 마케팅국 광고 매출 증대 기여
- **올해의 최우수 프로그램상** 임수근 제작팀, 장아영 편집2부, 이성모, 최계영 영상취재2부 6.25 60주년 특별기획 5부작 <한국전쟁을 말한다>
- **모범사원상** 신현준 미래전략팀, 장혜려 총무팀, 정상호 대전지국, 최동숙 관제팀, 한은규, 김성수, 이동수 타워운영팀, 이동원 문화사업팀, 김태형 편성운영부, 김세호 산업부, 정병화 사회부, 양일혁 문화부, 김여진 해외방송팀, 열덕선 영상취재부, 최용호 영상취재2부, 전주영 영상편집부, 김학욱 영상아카이브팀, 안광연 제작팀, 정애숙 제작2팀, 김세평 기술기획팀, 박경준 송출기술부, 김재탁, 오종근 제작기술부, 정해봉 장비관리팀, 박인식 사이언스 제작팀

4분기 포상 2010년 12월 31일

- **특종상 <금상>** 함형건 정치부 '김지자 주행' 해군 최신에 고속함 결함 보도 <은상> 정석영, 김태진 정치부 '황정업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보도 <동상> 나연수 사회부 한국장학재단 직원 공채 '특혜 의혹' 보도 / 송세혁, 김동철 강릉지국 유명 장 제조업체 '메주와 젤리' 허위 사기 판매 보도
- **우수프로그램상** 보도제작국 이강문 제작1팀, 김용섭 경제부, 김태운 영상취재2부 G20 특별기획 2부작 <파워 코리아, 더 큰 세계로> / 사이언스TV 제작팀 사이언스TV 최정수 프로그램 <보물섬>
- **공로상** 조항윤 심의실 YTN에 대한 외부평가 인사 효율적 관리, 김은주 경영관리팀 자회사 신 회계시스템 도입에 따른 연착륙, 최태선 마케팅 기획팀, 이인규 마케팅1팀 진성 신규유치 및 광고매출 증대 기여, 박상준 콘텐츠사업팀 폴리처상 사진전 전시회 성공적 개최, 이상훈 편성운영부 특집, 자체제작 프로그램 중편 스포츠 제작, 김동민 스포츠부 신규 프로그램 기획·제작으로 회사 경영에 기여, 원종호 영상취재부 YTN 헬기 촬영 전담, 유영식 영상아카이브팀 블루레이 HD자료 인제스트로 경비, 절감, 장민수 제작2팀 돌발영상 제작, 이기래 인프라팀, 김한수 기술연구소 중계용 디지털 마이크로웨이브 구축, 이기주 제작기술부 부산 해운대 고층 아파트 화재 CCTV화면 확보 최초 보도, 최병관 중계부 연평도 포격 현장 중계

게시판 _ 전보

박홍규 차장, 박기현, 권민석, 신윤정, 이종구 정치부, 신 호, 정유진, 홍성혁 차장 경제부, 김기봉 차장대우 산업부, 홍선기, 정재훈 차장, 황보연 차장대우, 구수분, 박조은, 김명우 사회부, 김경아 차장대우 사회2부, 양일혁, 이승은 차장대우, 김정아 차장대우, 김수진, 김선희 차장대우 문화부, 김지현 차장대우, 정혜운, 박소정 과학기상팀, 임상호 차장대우 스포츠부, 임정혁 차장대우, 이교준 차장, 이승훈 차장대우 국제부, 신윤진 차장대우, 김잔디, 김주환 차장, 박영진 편집1부, 윤경민 차장, 오승엽 차장, 이강진, 김지영 차장, 장이영, 이양희 차장대우 편집2부, 조승희 차장 편집3부, 이승현 앵커팀, 양준모 차장대우, 박민양 차장대우 영상취재부, 서승철 차장대우 영상취재2부, 시철우 영상편집부, 백상기 차장, 김익현 차장대우, 박태환 글로벌뉴스센터 글로벌기획팀, 홍주예 제작2팀, 강민석, 정재기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황순숙, 윤해남 사이언스TV본부 제작팀, 최명신 차장대우 기획총괄팀, 김대공 채널사업1팀, 유화성 차장 송출기술부, 미디어사업국 사업1팀은 콘텐츠사업팀으로, 사업2팀은 문화사업팀으로 일괄 발령. 12.13 / 박철원(도쿄파원 준비) 국제부 12.6 / 한영규 미디어전략실장, 김익진 총무국장, 진상욱 타워운영팀장, 박득송 글로벌뉴스센터장, 윤두현 편집부국장, 추은호 채널사업1팀장, 김은진 뉴스기획팀장, 상수중 편성운영부장, 이기정 정치부장, 천성규 산업부장, 권오진 사회2부장, 김장하 문화부장, 김진두 과학기상팀장, 박근표 스포츠부장, 박상남 국제부장, 최수호 이슈팀장, 박성호, 이상현, 김중술 이슈팀 선임기자, 유재복 편집1부장, 최재민 편집2부장, 오인석 편집3부장, 김형근 제작2팀장, 김해중 글로벌뉴스센터 글로벌기획팀장, 임종영 심의팀장, 조항윤 심의팀 선임기자, 한정호 홍보팀장, 김진호 인사팀장, 이윤규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장, 박경석 사이언스TV본부 제작팀장, 한성규 콘텐츠사업팀장, 나은수 문화사업팀장, 전우복 신사옥추진팀 추진위원 12.6